

# 한국어 음운론으로의 초대

- 훈민정음 체계 및 제자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

육 효 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 1. 훈민정음의 초성체계와 현대한국어의 자음체계

### 1.1. 훈민정음의 초성체계

	全淸	次淸	不淸不濁	全濁
牙音	ㄱ	ㅋ	ㅇ	ㄲ
舌音	ㄷ	ㅌ	ㄴ	ㄸ
脣音	ㅂ	ㅍ	ㅁ	ㅃ
齒音	ㅈ, ㅊ	ㅊ		ㅉ, ㅊ
喉音	ㅇ	ㅎ	ㅇ	ㅎ
半舌音			ㄹ	
半齒音			ㄷ	

### 1.2. 훈민정음 초성의 제자원리

五音	基本字	象形原理	加劃字	異體字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ㅋ	ㅇ
舌音	ㄷ	象舌附上月罅之形	ㅌ ㅌ	ㄹ
脣音	ㅂ	象口形	ㅍ ㅍ	
齒音	ㅈ	象齒形	ㅊ ㅊ	ㄷ
喉音	ㅇ	象喉形	ㅎ ㅎ	

### 1.3. 현대한국어의 자음체계

조음방법		조음위치	양순음 (Bilabial)	치경음 (Alveolar)	경구개음 (Palatal)	연구개음 (Velar)	성문음 (Glottal)
무성음	폐쇄음/ 파열음 (Stop/ Plosive)	평음(neutral) 격음(aspirated) 경음(tensed)	ㅂ[p , b] ㅃ[pʰ] ㅍ[pʰ]	ㄷ[t , d] ㅌ[th] ㅌ[ʰtʰ]		ㄱ[k , g] ㅋ[kʰ] ㆁ[kʰ]	
	파찰음 (Affricate)	평음(neutral) 격음(aspirated) 경음(tensed)		*ㅈ[ʧ, dʒ] 중세국어	ㅉ[ʧ, dʒ] ㅊ[ʧh] ㅆ[ʧʰ]		
	마찰음 (Fricative)	평음(neutral) 격음(aspirated) 경음(tensed)		ㅅ[s] ㅆ[sʰ]			ㅎ[h]
유성음	비음(Nasal)		ㅁ[m]	ㄴ[n]		ㅇ[ŋ]	
	유음 (Liquid)	설측음 (Lateral)		ㄹ[l ]			
		탄설음 (Flapped)		ㄹ[r ]			
전동음(Rolled)			ㄹ[r ]				

## 2. 훈민정음의 중성체계와 한국어의 모음체계

### 2.1. 훈민정음의 중성체계

#### (1) 제자원리

	象形	舌	聲
·	象平天	舌縮	聲深
一	象平地	舌小縮	聲不深不淺
丨	象平人	舌不縮	聲淺

#### (2) 합성자

	특징	보기
初出字	‘·’가 하나 쓰임	ㅏ, ㅑ, ㅓ, ㅕ
再出字	‘·’가 둘 쓰임	ㅛ, ㅜ, ㅠ, ㅋ
合用字	同出合用字	과, ㅍ, 거, ㅈ
	‘丨’合用 一字 中聲	이, ㄴ, ㄹ, ㅈ, ㅊ, ㅋ, ㅌ, ㅍ, ㅆ, ㅋ
	‘丨’合用 二字 中聲	내, ㄱ, ㅈ, ㅊ

### (3) 이중모음 체계

상향 이중모음: ㅟ, ㅠ, ㅡ, ㅢ / 와, 거, 내, 게

하향 이중모음: ㅜ, ㅠ, ㅡ, ㅝ, ㅞ

### (4) 단모음 체계의 변천

※ 중세국어 7 단모음 체계

→ 근대국어 8 단모음 체계

→ 현대국어 10 단모음 체계

## 2.2. 한국어의 모음체계

### 2.2.1. 단모음체계

혀의 앞뒤 위치 / 혀의 높이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高母音)	ㅣ [i]	ㄱ [y]	ㅡ [ɨ]	ㅓ [u]
중모음(中母音)	ㅑ [e]	ㅓ [ø]	ㅕ [ə]	ㅗ [o]
저모음(低母音)	ㅓ [ɛ]		ㅗ [a]	

### 2.2.1. 이중모음체계

#### (1) 반모음(semi-vowel)

구강내의 어느 부위가 맞닿을 정도로 좁혀진 틈으로 산출되는 지속음 [j]와 [w]이다. 반모음 [j]는 /i/ 모음의 조음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이고, 반모음 [w]는 /u/ 모음의 조음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

이들 반모음들은 조음상에서는 모음적인 특성이 강하지만 스스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모음이 앞이나 뒤에 있어야만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자음과 비슷하다. 미세한 개구도 차이로 모음과 자음의 사이에서 발음되므로 홀로 독립할 수 없는 과도음(過渡音, glide)이며, 과도음이기 때문에 단모음과 합성하여 이중모음을 생성하는데 과도적 요소로 잠재할 뿐이다. 이들에 의해 생성되는 이중모음들은 말 그대로 자음적인 특성보다는 모음적인 특성을 더 많이 지녀 이들을 한 단위로 파악한다.

#### (2)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단모음에 반모음을 덧붙여야만 만들어진다. 이 때 반모음과 결합하느냐, 또 그 반모음이 어느 쪽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계열로 나눌 수 있다.

① j-계 이중모음; 상향 이중모음: /ㅟ/[ja] /ㅠ/[jə] /ㅡ/[jo] /ㅢ/[ju] /ㅣ/[jɛ] /ㅤ/[je]

② w-계 이중모음; 상향 이중모음: /와/[wa] /거/[wə] /내/[wɛ] /게/[we]

③ -j계 이중모음; 하향 이중모음: /ㅜ/[ij]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③ -j 계 이중모음(하향 이중모음) /-/[ij] 다. 이 이중모음은 나머지 이중모음이 상향 이중모음임에 비해 하향 이중모음으로서 [ij]에 가까운 발음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유일한 하향 이중모음이어서인지 현재 그 발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 ‘희다, 환희, 무늬’ 등 표기에서는 자음 다음에서도 /-/가 쓰이고 있으나, 이 환경에서의 /-/는 /ㅣ/로 실현된다. ‘의사, 의자, 의욕, 의정부’처럼 자음이 앞에 놓이지 않을 때에만, 그것도 대부분 제1음절에 놓일 때에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내의, 강의, 민주주의’처럼 제2음절 이하에서도 제 음가대로 발음되기도 하고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이때에는 /ㅣ/로 발음되는 수가 많다. 그리고 ‘서울의 옛 이름, 천사의 날개’와 같은 속격조사 /의/는 제 음가대로 발음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꺄/로 발음한다.

### 3. 한국어의 음절

#### 3.1. 음절의 정의

(1) 음소보다 크고 낱말보다 작은 이런 발화의 단위를 가리켜 음절(音節, syllable)이라고 한다. 음절(syllable)이라 함은 통상 음운적 음절(phonological syllable)이 아닌 음성적 음절(phonetic syllable)을 가리킨다.

(2) 음절이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위이고, 또한 자음은 홀로 발음되지 못하고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으며, 따라서 모음이 이 음절의 중심임을 알 수 있다.

(3) 음절에서 중심이 되는 소리를 성절음(成節音, syllabic sound)이라 하고 성절음과 더불어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소리들을 비성절음(非成節音, non-syllabic)이라고 한다. 결국 음절은 하나의 성절음과 비성절음으로 연결된 구조이다. 비성절음은 다시 초성과 종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3.2. 음절의 기능

음절은 두 가지 중요한 음운론적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한국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에는 음소 연결 제약(phonotatic constraints)이 있는데, 이 제약은 음절이라는 단위를 설정해야 명확히 밝힐 수 있다.

음소 연결 제약이란 음소들이 연결되어 음절과 낱말을 이루게 될 때 일부 음소가 음절의 특정 위치에 나타나지 못하기도 하고, 특정한 음소의 배열이 허용되지 않기도 하는 제약을 말한다. 음절과 음절이 연결되어 음소 연결 제약에 위배되는 음소의 배열이 생기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음운 현상(phonological process)이 일어난다.

둘째, 음절은 음운 규칙의 적용범위로서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원순 모음은 같은 음절 안의 자음들을 원순화시키고 원순 반모음은 같은 음절 안의 자음을 원순화시킨다. 그러므로 음절이란 단위를 설정해야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제대로 규칙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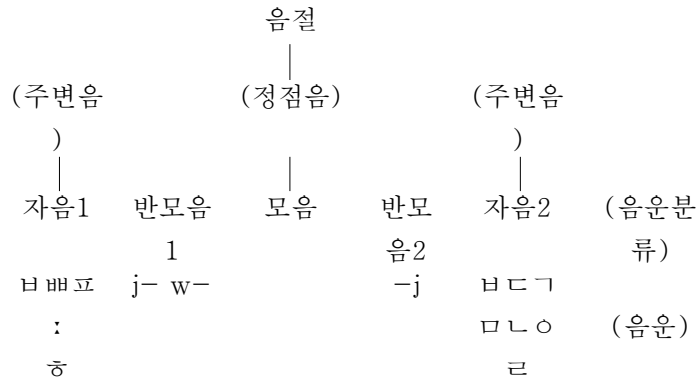
### 3.3. 음절에 관한 훈민정음의 규정

“凡字必合而成音” 규정

音의 3分法 (初聲, 中聲, 終聲)

### 3.4. 음절의 구조

한 음절에 정점을 이루는 정점음(頂點音)이 있고 그 앞뒤에 주변적인 주변음(周邊音)이 있다면, 한국어의 음절구조는 일단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한국어에 실제로 존재하는 음절 유형은 같이 9가지 유형이 된다.

(1) 한국어의 음절 구조

- ① 모음 : 이미, 아이, 오이
- ② 반모음1+모음 : 여러, 부여, 가야금
- ③ 자음1+모음 : 나, 저, 공기, 농구
- ④ 자음1+반모음1+모음 : 겨, 췌, 궁녀, 사과
- ⑤ 모음+반모음2 : 의(義), 마의태자
- ⑥ 모음+자음2 : 옥(玉), 알
- ⑦ 자음1+모음+반모음2 : 법의([버비], 法衣)
- ⑧ 자음1+모음+자음2 : 적, 밥, 서방
- ⑨ 자음1+반모음1+모음+자음2 : 벽, 관리, 낙원([나권], 樂園)

이상의 음절 구조에서 보면, 한국어는 음절 초두나 음절말에서 모두 자음군(子音群)을 허용하지 않는다. 표기상으로는 ‘닭, 없다, 훑는다’와 같은 음절말 자음군이 있으나 실제 발음에서는, 만일 그 위치가 자음 앞이거나 휴지 앞과 같은 음절말 위치라면 그 중 한 자음이 탈락하여 [닥, 업-, 훑-]과 같이 된다. 그리고 ‘닭이, 없으면’에서처럼 그 뒤에 모음이 오면 둘째 자음이 [달기, 업스면]과 같이 그 다음 모음 음절의 첫소리로 자리를 옮겨 연음화가 일어나므로 음절말에는 결국 한 자음밖에 남지 않는다.

대다수의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학습자인 외국인들은 ‘꽃, 때, 뼈, 짝’ 등의 ‘ㄱ, ㄷ, ㅁ, ㅂ’ 등을 자음군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ㄱ, ㄷ, ㅁ, ㅂ’ 등은 자음군이 아니다. 이들은 글자의 구성상으로는 두 자음으로 되어 있으나, ‘ㅋ, ㅌ, ㅍ, ㅊ’이 한 자음인듯이 ‘ㄱ, ㄷ, ㅁ, ㅂ’ 등도 한 자음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음절 초두(또는 어두)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수는 하나뿐이며, 음절말(또는 어말)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수도 하나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어중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수도 둘을 넘지 못한다. 한국어의 이러한 음절 구조 때문에 영어의 cream, spring, text 등을 한글로 전사(轉寫)하려면 ‘크림, 스프링, 텍스트’처럼 하지 못하고, 자음군 사이 사이에 모음 ‘-’를 넣어서 ‘크림, 스프링, 텍스트’처럼 전사하는 편법을 쓰는 것이다.

(2) 음절말 자음군 중 어느 자음이 탈락하느냐는 자음군에 따라 대개 일정하나 예외도 있다. 자음군이 ‘ㄴ, ㄷ, ㅁ’일 때에는 뒷 자음이 탈락한다.

넋[넉] 앓는다[안는다] 값[갑]

(3) 자음군이 ‘ㄹ’로 시작하는 것은 두 갈래로 갈리는데, ‘래, 라, 래’일 때에도 뒷 자음이 탈락하고, ‘러, 레, 래’일 때에는 앞 자음이 탈락한다. 그러나 ‘밟다’는 예외다. 또 ‘러’이 ‘ㄱ’을 만날 때도 예외다.

- ① 여덟[여덜] 외곶[외골] 핏는다[핛는다]→[핛른다]
- ② 밟는다[밟는다]→[밟는다] 밟지[밟지]→[밟찌]
- ③ 닭[닥] 맑다[막다]→[막따] 젊다[점다]→[점따] 읊다[읍다]→[읍따]
- ④ 맑게[말게]→[말께] 맑구나[말구나]→[말꾸나]

(4) 이상의 규칙이 적용되고 나면 한국어의 음절 경계는 매우 기계적으로 그어진다. 한국어에서는 자음은 어떤 경우에도 성절음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음절의 경계는 보통 V-V, V-CV, VC-CV의 세 유형으로 대표된다. 두 모음이 이어질 때면 그 사이에 경계가 놓이는 것은 당연하고, 두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 올 때는 흔히 그 자음 앞에 경계가 놓인다(다만 그 자음이 /o/[ŋ]일 때는 /o/[ŋ] 뒤에 음절 경계가 놓인다.). 그리고 두 모음 사이에 올 수 있는 자음은 최대한 2개인데 음절의 경계는 두 자음 사이에 놓인다.

- ① 물이 [무-리]
- ② 날개 [날-개] 흙을[흙-글]
- ③ 닭싸움 [닭-싸움]
- ④ 종이 [종-이]

## 4. 한국어의 음운 규칙

### 4.1. 중화(中和; neutralization)

- (1) ① 부억[부억] 밖[박]
- ② 받[반]
- ③ 앞[압]

- (2) ① 옷[온] 있다[인다]
- ② 젓[전]
- ③ 빛[빈]

이상에서 보면 폐쇄음의 격음과 경음은 해당 평음으로 바뀌고, 마찰음과 파찰음은 어느 것 할 것 없이 모두 ‘ㄷ’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애초 다른 단어이던 것들이 동음어가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 (3) ① 입 : 앞[입]
- ② 낫[날] : 낫[날] : 낮[날]

이처럼 애초 별개 음소로 대립되던 것들이 특정 환경에서 그 변별력을 상실하는 현상을 중화(中和; neutralization)라 한다. 중화는 음절말 위치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어떤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면 중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꽃이, 꽃으로’는 [꼬치, 꼬츠로]로 실현되므로 ‘ㄷ’은 음절말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일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단어일 때에는 중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복합어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점에서 복합어를 이루는 구성요소 사이에는 단어의 경계가 놓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에 일단 중화된 음절말 자음은 후속 모음의 음절 초두로 발음되기도 한다.

- (4) ① 젓(##)어미 → 전##어미 → [저더미]
- ② 걸(##)옷 → 건##온 → [거둔]
- ③ 무릎(##)아래 → 무릅##아래 → [무르바래]

종래 중세와 근대 한국어 표기법에서는 중화 현상을 표기법에 반영하여 팔중성법 내지 칠중성법을 채택하였었는데, 현행 표기법은 형태소의 기본형, 즉 그 기저형을 밝혀 적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그만큼 표기와 발음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것은 글을 읽을 때보다도 남의 말을 듣고 받아쓰기를 할 때 주의를 요하게 된다.

### 4.2. 중화와 관련한 훈민정음의 규정

終聲復用初聲

8 終聲可足用

### 4.3. 중성표기법의 변천

중세국어 8중성법

→ 근대국어 7중성법

→ 현대국어 음절의 끝소리규칙(7개)

### 4.4. 동화(同化; assimilation)

서로 이웃해 있는 두 음 중 하나가 나머지 음의 영향을 받아 그와 같거나 가까운 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同化; assimilation)라 한다. 한국어에도 많은 동화 현상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표기법에서는 동화되지 않은 상태의 기본형을 택한다. (다음에 표기법을 먼저 보이고 그 동화형을 화살표로 보이기로 함.)

한국어의 동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음화 규칙이다. 이것은 폐쇄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규칙으로서 ‘ㄱ→ㅇ, ㄷ→ㄴ, ㅂ→ㅁ’처럼 폐쇄음이 비음으로 바뀌되 조음위치가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규칙이다. 이때에 폐쇄음 ‘ㄱ, ㄷ, ㅂ’은 중화 규칙을 거친 결과이거나 자음군의 하나가 탈락한 결과일 수도 있다.

(1) ① 국물 → [궁물], 먹는다 → [멍는다]

② 부엌만 → [부억만] → [부영만]

③ 뉘는다 → [뉘는다] → [뉘는다]

(2) ① 받는다 → [반는다]

② 붙는다 → [붙는다] → [분는다]

(3) ① 범망 → [범망], 돕는다 → [돛는다]

② 앞마당 → [압마당] → [암마당]

③ 없는 → [업는] → [엄는]

‘ㄹ’에 이웃하는 ‘ㄴ’이 그 ‘ㄹ’에 이끌려 ‘ㄹ’로 바뀌는 규칙, 즉 설측음화 규칙도 대표적 동화의 하나다. 한국어에서 ‘ㄹ’은 ‘ㄹ’ 이외의 어떤 자음 뒤에도 분포하지 못한다. 따라서 부득이 그러한 분포가 빚어지는 상태가 되면 두 자음 중 하나가 다른 자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ㄹ+ㄴ’이나 ‘ㄴ+ㄹ’의 조건에서는 ‘ㄴ’이 ‘ㄹ’로 바뀌는 것이다.

(4) ① 난로 → [날로], 권력 → [퀘력]

② 칼날 → [칼랄], 핏는다 → [핛는다] → [핛른다]

다만 (4①)과 같은 조건이더라도 다음 (5)의 예에서는 ‘ㄴ’이 ‘ㄹ’로 바뀌지 않는다. 그 대신 뒤의 ‘ㄹ’을 ‘ㄴ’으로 바뀌어 ‘ㄴ+ㄹ’이라는 불가능한 분포 상태를 깬다. 이것은 ‘의견, 생산’ 등의 단어가 워낙 굳어진 상태여서 그쪽을 원음대로 살리려는 의식이 작용하여 뒤따르는 ‘란, 량, 료, 로’ 등에 두음법칙이 적용된 결과일 것이다.

(5) 의견란 → [의견난], 생산량 → [생산냥], 입원료 → [입원뇨], 횡단로 → [횡단노]



구개음화(口蓋音化)도 중요한 동화의 하나다. 이는 흔히 명사나 용언 어간의 말음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미사와 결합할 때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규칙으로 대표된다. ‘ㄷ’을 말음으로 하는 명사나 용언은 없기 때문에 ‘ㄷ’이 ‘ㅈ’로 바뀌는 용례는 없다.

- (6) ① 받이 → [바치], 솔이면 → [소치면], 같이 → [가치]  
② 미단이 → [미다지], 굳이 → [구지]  
③ 굳히다 → 구티다 → [구치다], 닫히다 → 다티다 → [다치다]

### <참고 문헌>

- 육효창(1989),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연구사적 고찰」, 동악어문논집 제24집, 동악어문학회.  
육효창(1997), 『중세국어 처음의 음가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육효창(1998), 「중세국어 처음의 음가 재고 -전칭음 ‘ㅈ, ㅊ’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회 제121호, 국어국문학회.  
육효창(2003), 「한국어 음운·음성 교육」, 동국어문학 제15집,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육효창(2006a), 「한국어 음운 교육 연구 -구개음화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제3권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육효창(2006b),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음운 교육 연구」, 한성디지털대학교 교수연구논문집 제1집.  
육효창(2006c), 「구개음화에 대한 일고찰」, 동국어문학 제17,18집,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육효창(2007),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음운 교육상의 과제」, 한성디지털대학교 교수연구논문집 제2집.  
육효창(2009), 「한글 교육과 훈민정음」, 제3회 뉴질랜드 한인학교 교사연수, 뉴질랜드 한인학교협의회.  
육효창(2010), 「한국어 문법과 어문규범」, 제6회 유럽 한글학교 교사 세미나, 유럽 한글학교협의회.  
육효창(2010), 「한국어 음운체계와 훈민정음」, 태국 한글학교 교사연수, 태국한글학교협의회.  
이기문 외(2001), 『증보판 국어음운론』, 학연사.  
이병근 외(1997), 『국어음운론』, 방송대출판부.  
이상직(2000), 「한국어의 표준발음과 음운현상」,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방법과 실제』 (남기삼 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이익섭 외(2001),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이현복(2000), 『개정판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정연찬(1997), 『개정 한국어음운론』, 한국문화사.  
최세화(1976), 『15세기 국어의 중모음연구』, 아세아문화사.  
최세화(1987), 『국어학논고』, 동국대출판부.  
한재영 외(2003), 『한국어 발음 교육』, 한림출판사.  
박기덕 외(2003),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허 웅(1985), 『국어음운학: 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샘문화사.